



코로나 19 사태로 공연장, 미술관 휴관이 길어지면서 광주문예회관 등 지역 대표 기관들이 공연 생중계 등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 아쉬웠던 문화생활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즐긴다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등 유튜브 생중계  
김영옥·이상협·이효주·유영욱 등 출연  
시립예술단, '다시 보고 싶은 명작'도 진행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이 온라인 공연 서비스 코로나 극복 예술프로젝트 '슬기로운 문화생활, GAC 유튜브 안방예술극장'을 진행한다. 광주시립예술단의 공연 실황과 '다시 보고 싶은 명작'이 주프로그램이다. 먼저 광주시립예술단의 무관중 공연 실황은 오는 26일부터

문예회관 유튜브 채널 '각(GAC)나오는 TV'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3시 하루 두 번 업로드 된다. 26일 오후 2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액맥이 타령'을 공개하며 오후 3시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의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과 '살풀이' 공연을 차례로 생중계한다.

4월 1일 오후 2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시리즈인 베토벤 '현악4중주 작품 18-4', 슈베르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공연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의 '함내라 코리아-빛나는 내일'을 업로드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었던 GAC기획공연과 브런치 콘서트도 진행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 & 피아니스트 이효

주 듀오 콘서트'는 4월 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등이다.

'11시 음악산책-유영욱의 베토벤니즘'은 4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KBS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자인 아나운서 이상협이 호스트를 맡았고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출연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접속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등을 선보인다.

문예회관은 또 시립예술단의 인기 작품을 재편집한 '다시 보고 싶은 명작'을 매주 화요일마다 업로드한다. 24일 광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뮤지컬 '여덟 빛깔 뮤지컬'을 시작으로 시립극단 '나의 살던 고향' (31일), 시립합창단 '모차르트&포레 레퀴엠' (4월7일), 시립발레단 '파키타&달빛 아리랑' (4월14일), 광주시향과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협연한 '2020신년음악회' (4월21일), 시립오페라단 '카르멘' (4월28일), 시립합창단 '평화의 합창' (5월5일)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효주 김영옥 이상협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놀이가 미술이 될 때'전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당분간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영상 전시투어  
'놀이가 미술이 될 때' 전 홈페이지 소개  
하정웅 컬렉션 '불혹'전도 사이버 제공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먼저 천정을 올려다 보게 된다. 숨으로 만든 구름 사이로 낙하산을 맨 이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 노동식 작가가 만든 공간이다. 이어 만나는 건 고양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최순임 작가의 작품이다. 고양이와 소녀 조각작품 사이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으면 벽면에 밝은 불이 들어온다. 한쪽의 대형 오르골은 관람객이 직접 돌리면 영롱한 소리를 들려준다.

진시영 작가의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전시장 전면을 감싼 공간에 들어서면 불과 천으로 만든 구조물 사이로 그녀가 매달려 있는 손뭉주 작가의 '둥둥둥'이 보인다. 한쪽엔 진영섭 작가의

10m 길이 대형 작품 '또 다른 세상'을 꾸미는 물고기'가 전시돼 있다. 수백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하나로 모여 큰 고래 형상을 이루고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불맞이 기획전-놀이가 미술이 될 때'전은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다. 작품 모두가 촬영 스폿이 없고 무엇보다 나와 작품이 서로 반응하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아쉽게도 이번 전시는 코로나 19 때문에 관람객들에게는 아직까지 오픈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관측은 오는 4월19일까지로 예정된 전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우선은 영상전과 온라인 전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관람객을 찾아가겠다.

'놀이가 미술이 될 때'전의 영상 전시는 17일 미술관 홈페이지

지를 통해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전시가 개괄적으로 소개됐고, 20일부터 '상상하는 생각' '놀이의 발견' '움직이는 미술' 등 3개 섹션들로 구성된 전시 작품이 설치된 동선을 따라 10분 분량의 온라인 전시투어가 펼쳐진다. 특히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전시인 만큼 직접 시범을 통해 관람객들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하정웅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5·18광주민중추화운동 40주년 기념 하정웅 컬렉션 특별전 '불혹'전(6월21일까지)은 온라인 전시투어라는 형식으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정웅 컬렉션 중 세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거나 5·18광주민중추화운동과 그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 128점이 전시되고 있는 '불혹'전 온라인 전시 투어를 전시기획자인 홍윤리 학예연구사가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앞으로 사이버미술관 아카데미 개설도 검토중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VR로 관람하세요”

사이버체험관 구축 전시관 등 유물 감상

국립광주박물관도 사이버체험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이버체험관에 접속하면 본관과 어린이박물관 전시를 가상현실(VR)로 감상 가능하다.

VR-과노라마 기술을 매개로 항공뷰 전시관 및 어린이 박물관 실내부를 감상할 수 있다. 클릭을 하면 관람자가 사이버상에서 이동하며 전시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어 실제 전시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선사문화실, 서화실, 도자문화실 등 박물관의 주요 공간을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유물을 선택하면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열려 호평을 받았던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흑백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흑백의 향연'은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초현에 위치한 도자기가 마인 자주요의 명품을 국내 최초 소개하는 전시다. 우리나라의국보와 같은 중국 1급 유물 등 중국 자주요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들이 선보였다. 자주요 도자는 거친 태도 위에 하얀 화장토를 발라 표면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